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맨 처음에 사람의 위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평범한 말로 풀어내고(1문), 이어서 그 내용을 '비참함-구원-감사'의 삼중적인 관계로 제시하였다(2문). 그 다음에 나오는 3-4주일은 '죄와 비참함'을 다루는 부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6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하여 알려 주고(7, 9-11문)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는 일에 소망을 두게 한다(8문). 이처럼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창조'와 '구속'의 주제를 다룬다. '창조-타락-구속'을 단계적으로 딱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표현이다. 첫째, "하나님이 그 지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하신 말씀에서 ‘좋았다’나 6문의 ‘선하다’ 는 같은 단어이다(영어의 good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악과 패역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없다.

둘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도 창세기 1:26-28의 내용을 복창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 이 구절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일’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일’과 연결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다.

형상과 통치권의 밀접한 관계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이 단어의 용례와도 일치한다. 당시에 ‘형상’이라는 말은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대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우상도 ‘형상’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우상이 그 지역에서 신을 대리하는 자라는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분의 통치권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살도록 지음 받은 피조물이었다.

6문에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가르친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 마음으로 사랑하며,
-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알고-사랑하고-함께 살고-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중 세 가지인 ‘서로 알고-사랑하고-함께 사는 것’은 다른 아닌 가족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¹⁾



그림 1. 요한 칼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교제로 설명하였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권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한편, 요리문답에서는 언약의 교제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 모순이나 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 언약의 교제를 나눌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긴밀

1 하나님을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나누는 관점에서 잘 해석한 책은 다음을 보시오. Jason Van Vliet, Children of God: The Imago Dei in John Calvin and His Context (Vanderhoeck & Ruprecht, 2009).

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일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면서 교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것이다(계 22:5). 그날에 왕 노릇 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직접 그분을 뵈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네 가지 목적 중에 마지막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앞의 세 목적에 모두 걸리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창조의 주된,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다."²⁾



그림 2. 우르시누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명하였다)

2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80;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28.

사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 9)하면서 찬송을 드렸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계 21:3). 장차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뵈고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2. 고의로 불순종한 인간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故意)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지음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금령’을 주셨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로써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금령은 지키기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선 선악과 금령으로써 아담에게 생명과 사망을 가르쳐 주셨다.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었지만, 반대로 그 명령을 지키면 생명나무로 표시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아담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 사망과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담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범죄 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부정적인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3.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날 인간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8문의 질문에서는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철저히 묻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답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것처럼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비참함을 그토록 깊이 있게 가르치지만, 그 과정에서도 성신으로 새롭게 되는 복음을 가르쳐 주고, 역으로 말하면 복음의 빛으로 죄가 무엇 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않는 한”이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성신의 사역을 통하여서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엄격히 가르치는 것은 성신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전적인 타락에 대한 대안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성신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변화이다.³⁾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그러 하였듯이,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창세 때의 언약의 교제가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성신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된’ 사람이다(엡 2:10). 이러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성신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53, 65문).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일도 말씀으로 하신다.

4. 이원론적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진술은 명확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하다. 로마 교회에서는 ‘자연’과 ‘은총’, ‘영혼’과 ‘육신’을 구분 짓는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하여 가르쳤다. 그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고 다만 ‘덧붙여진 은사’(donum superaditum)를 상실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고 교회가 베풀어 주는 특별 은총 영역이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1층과 신자만 접근할 수 있는 2층이 있는 건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중세의 마을 구조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양 중세의 마을 구조를 보면, 촌락의 한복판에 성당이 높이 솟아 있었다. 일상생활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더라도

3 성신으로 말미암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하여서 요리문답은 특히 1, 32, 86, 115문 등에서 잘 가르친다.



그림 3.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님의 형상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도, 특별 은총을 얻으려면 높은 첨탑이 있는 성당에 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중세의 사고방식은 당시 촌락의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한 시대에 종교개혁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도 사람의 영혼과만 관련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과 관련하여 가르쳤다. 즉 사람의 영혼 및 지성과 관련하여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알고-사랑하며-함께 살고-영광 돌리는' 언약의 교제로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신자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되, 삼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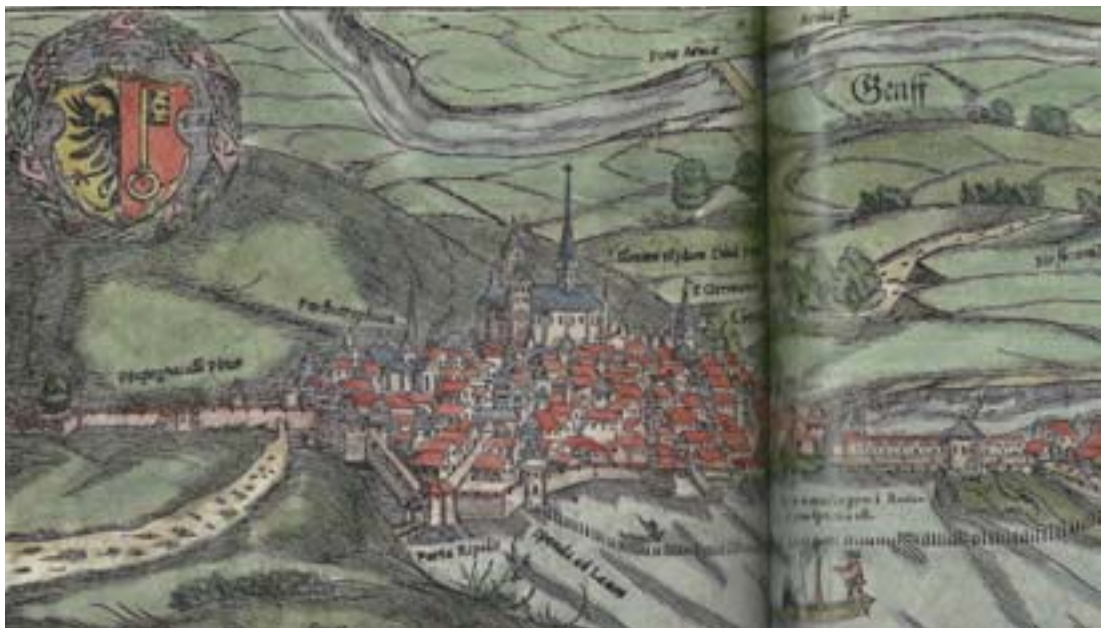


그림 4. 16세기의 제네바 (도시의 중앙에 고딕 성당이 우뚝 솟아 있다)